

NCC 흑자전환의 부푼 꿈 95년에도 호황은 계속될 것인가!

1995년 신년의 새아침이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사회현상 만큼이나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했던 94년도 이젠 기억속에 자리잡았다. 화학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기초산업에서 수요산업에 이르기까지 94년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들을 분석하고 내일을 전망하는 일이다.

이에 본지는 화학산업을 7개부문으로 나누고 여기에 95년 ISUE들을 더해 8개의 특집을 마련, 매주 2개 부문씩 4주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할 화학산업의 경쟁력제고에 다 소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

국내 기초유분 수요전망				(단위: 1000M/T)
구분	품명	1994	1995	비고 (원단위)
에틸렌	LDPE	1000.6 (1021.0)	1174.0 (1198.0)	0.98
	HDPE	1284.0 (1284.0)	1334.0 (1334.0)	1.00
	EG	244.1 (359.0)	269.3 (396.0)	0.68
	VCM	144.9 (690.0)	147.0 (700.0)	0.21
	EDC	87.3 (301.0)	96.0 (331.0)	0.29
	EPR	20.4 (34.0)	24.0 (40.0)	0.60
	AA	16.3 (24.0)	16.3 (24.0)	0.68
	SM	400.5 (1335.0)	405.9 (1353.0)	0.30
	계	3198.1	3466.5	
프로필렌	PP	1657.3 (1609.0)	1679.9 (1631.0)	1.03
	AN	107.4 (95.0)	108.5 (96.0)	1.13
	옥탄올	100.2 (131.0)	103.3 (135.0)	0.77
	부탄올	9.4 (14.0)	10.1 (15.0)	0.67
	페놀	35.5 (96.0)	36.3 (98.0)	0.37
	아크릴산	40.8 (77.0)	40.8 (77.0)	0.53
	EPR	10.9 (34.0)	12.8 (40.0)	0.32
	PO	82.7 (106.0)	99.8 (128.0)	0.78
	계	2044.2	2091.5	
부타디엔	SBR	102.5 (153.0)	106.2 (158.5)	0.67
	SB-L	15.1 (71.0)	15.8 (74.0)	0.21
	BR	101.1 (97.2)	103.0 (99.0)	1.04
	ABS	58.4 (389.0)	70.5 (470.0)	0.15
	계	277.1	295.4	

1994년 국내 석유화학, 특히 기초유분 시장은 뜻밖의 호경기를 맞으며 과거 88~89년「한국경제의 효자」라는 산업규모에 걸맞는 칭호를 되찾았다.

수치상의 결과에서도 그러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기초유분 시장은 안팎을 통틀어 실로 감당하기조차 벅찬 탄탄한 행마를 거듭했다.

94년 국내 전반적인 경제상황도 이같은 효자산업을 바탕으로 최근 3년여의 기나긴 불황을 극복해냈다. 94년 상반기까지 180억달러 적자에서 반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94년의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당초 계획한 7%보다 1%포인트 앞지른 8%를 기록했으며, 민간소비증가율도 성장률보다는 낮은 7.4%를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들은 객관적으로 안정된 경제성장으로 대

변되는 국내경기의 빠른 회복국면을 뒷받침하고 있다.

NCC기업 손익추이				(단위: 억원)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추정)
호남석유화학					
◎매출액	2,837	2,871	3,080	3,202	4,400
◎순이익	152	7	▽221	▽688	200
대한유화					
◎매출액	2,460	2,554	2,769	2,570	3,700
◎순이익	66	▽96	▽547	▽1,245	▽50
대림산업					
◎매출액	7,300	6,872	5,607	4,217	6,500
◎경상이익	700	500	300	▽300	300
한화종합화학					
◎매출액	7,173	8,205	8,867	10,262	12,000
◎순이익	224	165	201	▽339	200
유◎◎공					
◎매출액	4,387	6,280	6,793	6,997	11,000
◎경상이익	▽400	▽236	▽700	▽500	600
럭키석유화학					
◎매출액	0	691	2,400	2,808	3,200
◎순이익	4	▽159	▽556	▽636	▽50
삼성종합화학					
◎매출액	0	1,109	3,952	3,919	4,800
◎순이익	-1	▽71	▽969	▽943	▽200
현대석유화학					
◎매출액	3	179	3,454	3,748	4,200
◎순이익	0	▽22	▽696	▽594	▽250

다소 과장된 표현대로라면 올레핀시장이 화학산업은 물론, 관련산업전체로 확산되면서 회복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기억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던 NCC기업들의 흑자전환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있어서 94년은 NCC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의 호기를 놓치지 않고 기술과 정보로 전략적 승부수를 띄운 원년으로 자리매김됐기 때문이다.

이제 만년 공급과잉과 밀어내기 수출이라는 뼈아픈 과거를 뒤로한 채 100%흑자전환의 청사진을 꿈 꾸기에 바쁜 NCC의 1995년 새해가 밝았다.

주기상으로도 1년6개월 정도 빨리 찾아온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인 올레핀시장이 결코 수치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우위전략을 가속화하여 완전개방시대에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994년 시장현황

94년 한해동안 에틸렌 생산은 356만100톤으로 92년 281만100톤, 93년 323만7000톤에 비해 10.1% 증가했으며, 내수판매 319만8100톤, 수출 36만2000톤으로 모두 356만100톤을 판매, 93년 331 만100톤에 비해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수요는 319만8100톤으로 93년 307만4400톤에 비해 4% 증가하는 등 92년 281만3600톤 이후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프로필렌은 94년 생산이 210만4200톤으로 92년 162만8100톤, 93년 188만2000톤에 비해 11.8% 증가했으며 로칼을 포함한 내수판매도 198만4200톤으로 93년 179만3700톤에 비해 10.6% 증가했다. 수출은 12만톤으로 93년 9만5300톤에 비해 25.9% 증가하는 높을 신장세를 나타냈다. 국내수요는 204만4200톤으로 93년 187만1200톤에 비해 9.2% 증가했다.

부타디엔은 94년 생산이 52만 3100톤으로 92년 37만61 00톤, 93년 48만3600톤에 비해 8.1% 증가했으며, 판매는 수출을 포함 52만 3100톤으로 93년 47만9700톤에 비해 8.2% 늘어났다. 국내수요는 27만 7100톤으로 93년 25만 8200톤에 비해 7.3% 증가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자연증가율 이상 신장되는

수급변화를 지속했다.

이같은 수급상황을 놓고볼 때 94년의 올레핀시장은 다소 안정된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수출전략강화를 통한 수급조절을 원활히 해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에틸렌의 경우, 356만100톤의 생산량 가운데 319만8100톤이 내수판매됐으며, 나머지 36만2000톤이 수출되는 등 93년에 비해 수출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국내 올레핀 수급전망										
구 분		1993		1994						
		내수	생산	국 내 판 매			직수출	계	수입	내수
				내수	로칼	계				
에틸렌	CASE-1	3074.4	3715.1			3353.1	362.0	3715.1	-	3353.1
	CASE-2		3560.1			3198.1	362.0	3560.1	-	3198.1
	CASE-3		3687.0	3150.0	179.0	3329.0	362.0	3691.0	-	3329.0
프로필렌	CASE-1	1871.2	2206.7			2086.7	120.0	2206.7	60.0	2146.7
	CASE-2		2104.2			1984.2	120.0	2104.2	60.0	2044.2
	CASE-3		2104.0	1851.0	163.0	2014.0	120.0	2134.0	60.0	2074.0
부타디엔	CASE-1	258.2	516.6			270.6	246.0	516.6	-	270.6
	CASE-2		523.1			277.1	246.0	523.1	-	277.1
	CASE-3		549.0	237.0	71.0	308.0	246.0	554.0	-	308.0

1995(전망)							
생산	국 내 판 매			직수출	계	수입	내수
	내수	로칼	계				
3809.9			3487.9	322.0	3809.9	-	3487.9
3788.5			3466.5	322.0	3788.5	-	3466.5
3774.0	3268.0	184.0	3452.0	322.0	3774.0	-	3452.0
2236.3			2098.3	138.0	2236.3	50.0	2148.3
2179.5			2041.5	138.0	2179.5	50.0	2091.5
2170.0	1856.0	176.0	2032.0	138.0	2170.0	50.0	2082.0
530.6			279.6	251.0	530.6	-	279.6
546.4			295.4	251.0	546.4	-	295.4
561.0	233.0	77.0	310.0	251.0	561.0	-	310.0

단지별 기초유분 수급현황(1994)							(단위 : 1000MT/년)
구 분		에틸렌			프로필렌		
		생산능력	수요	과부족	생산능력	수요	과부족
여천 단지	호남석유화학	400	340	60	236	227	9
	대림산업	700	432	268	400	206	194
	한화종합화학	400	481	▽81	200	14	186
	력키	400	400	-	200	351	▽151
	기타	-	14	▽14	-	43	▽43
계		1,900	1,666	234	1,036	841	195
울산 단지	유공	570	288	282	312	250	62
	대한유화	300	330	▽30	180	412	▽232
	기타	-	271(172)	▽280	165	221	▽56
	계	870	889	▽19	657	883	▽226
대산 단지	삼성종합화학	400	474	▽74	200	216	▽16
	현대석유화학	400	476	▽76	210	258	▽48
	계	800	950	▽150	410	474	▽64
합계		3,570	3,505	65	2,103	2,198	▽95

또 프로필렌의 경우도 210만4200톤의 생산량 가운데 198만4200톤이 내수판매됐으며, 12만톤이 수출, 204만4200톤의 국내수요만 가지고도 거의 생산량을 흡수할 수 있는 수급상황을 보였다.

국내 프로필렌 유도품 신증설 계획		(단위: 1000M/T)	
구 분	기업명	생산규모	C3-수요량
PP (1.03)	유 공	100	103
	대 림	80	82
	한화종합화학	120	124
	호 남 정 유	80	82
	동 양 나 이 론	100	103
	현 대	60	62
	계	540	556
2EH (0.85)	력 키	80	68
	한화종합화학	100	85
	계	180	153
Acrylic Acid (0.53)	한화종합화학	40	21
AN (1.20)	태 광 산 업	200	240
PO (0.78)	유 공	61	48
합 계			1,018

에틸렌유도품 신증설 계획		(단위 : 1000MT/년)	
구 분	기업명	생산규모	C3-수요량
HDPE (1.00)	유 공	100	100
	현 대	60	60
	력 키	80	80
	계	240	240
LLDPE (1.00)	대 림	100	100
LDPE (0.98)	현 대	100	98
EG (0.70)	호 남	200	140
	현 대	100	70
	계	300	210
VAM (0.35)	삼성BP화학	150	53
SM (0.30)	현 대	200	60
	포 스 코 캄	250	75
	유 공	177	53
	삼 성	200	60
	계	827	248
EDC (0.29)	력 키	150	44
	한 화	150	44
	계	300	88
VCM (0.21)	력 키	300	63
	한 화	160	34
	계	460	97
합 계			1,134

올레핀 가격폭등 시장회복 주도

94년 올레핀시장의 주요 특징은 무엇보다 가격면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수급면에서의 타이트한 양상이 국제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규모화와 2/4분기 이후 계속된 국내시장가격 연동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NCC기업들의 경영회복으로 이어졌다.

결국, 93년 제살깎기식 밀어내기수출에서 국제가폭등에 따른 전략적인 수출규모화로 전환됐으며, 이에따른 국내 수급시장의 올레핀공동화현상이 빚어지는 등 뚜렷한 시장반전이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같은 기초원료가 폭등은 합성수지를 비롯한 유도품 전체로 확산됐으며, 93년까지만해도 PP 102%,

HDPE 97%의 과잉률을 보였던 유도품시장의 공급과잉상태가 급속히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에틸렌의 경우 국내가는 94년 11월기준 톤당 447달러로 2개월전인 9월 340달러에 비해 107달러 상승했으며, 1/4분기 300달러에 비해서는 무려 147달러가 폭등했다. 동남아가격도 11월 635달러로 1/4분기 297달러에 비해 무려 338달러나 상승했으며, 미국 계약가격 역시 650달러로 1/4분기 452달러에 비해 43.8% 큰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NCC기업의 Debottlenecking에 의한 기초유분 증설계획 (단위:1000MT/년)					
구 분		기준규모	증산규모	합 계	비 고
유 공	에틸렌	570	130	700	FCC10만톤추가('94)
	프로필렌	312	171	483	
대림산업	에틸렌	700	90	790	Furnace 1기추가
	프로필렌	400	50	450	
력 키	에틸렌	450	50	500	"
	프로필렌	250	20	270	
호남석유화학	에틸렌	400	70	470	"
	프로필렌	236	24	260	
한화종합화학	에틸렌	380	70	450	"
	프로필렌	190	35	225	
현 대	에틸렌	400	70	470	Furnace 추가없음
	프로필렌	230	30	260	
삼 성	에틸렌	450	50	500	Furnace 1기추가
	프로필렌	250	20	270	
합 계	에틸렌	3,350	530	3,880	
	프로필렌	1,868	350	2,218	

프로필렌은 11월기준 국내가가 585달러로 연초 297달러에 비해 288 달러 상승, 96.9%의 가격폭등을 보였으며, 동남아가격도 800달러로 연초 335달러에 비해 두배가 넘는 138%의 놀라운 가격상승을 나타냈다.

결국 올페핀시장도 국내가 기준 최소 톤당 150달러에서 최대 290달러의 폭등세를 유지하는 등 가격면에서 국제시장의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다시말해 수요면에서 자연증가율을 다소 웃도는 선에 그쳤던 국내시장은 가격면에서의 폭등세를 틈타 발빠른 회복을 보였으며, 이같은 상황이 유도품으로 이어지면서 기대이상의 전반적인 시장회복을 가져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원유가상승 및 세계적인 경기회복 추세에 편승, 강세를 거듭했던 나프타가격이 94년 8월들어 다소 주춤하면서 약보합세로 돌아서자 올레핀시장의 회복세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을 낳았다. 실제 나프타가격이 원유가상승 원인인 나이지리아 파업사태가 진정되면서 가격이 C&F Japan기준 톤당 178달러에서 7달러나 하락, 조정국면에 들어섰음에도 이 기회를 놓칠세라 국내 NCC기업이 이 기간동안 올레핀가격을 동결, 3/4분기 원료가격변화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강수를 펼쳤다.

국내 NCC기업 흑자전환 기반 다져

한편, 이같은 시장변화에 따라 국내 NCC기업의 손익추이 또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기업별로 보면, 호남석유화학은 92년 매출 380억원, 221 억원 적자에서 93년 매출 3202억원, 688 억원 적자로 더욱 악화됐으나 94년에는 4400억원 매출에 순이익 200억원(추정)으로 반전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대림산업은 92년 매출 5607억원, 순이익 300억원, 93년 매출 421 7억원, 적자 300억원에서 94년 매출 6500억원, 순이익 300 억원(추정)으로 돌아섰으며, 한화종합화학도 92년 매출 8867억원, 순이익 201억원, 93년 매출 1조262억원, 적자 339억원에서 94년에는 매출 1조2000억원, 순이익 200억원(추정)으로 집계됐다.

유공은 석유화학부문 기준 92년 매출 6793억원, 적자 700억원, 93년 매출 6997억원, 적자 500억원에서 94년 매출 1조1000억원, 경상이익 600억원(추정)으로 흑자전환됐다.

또 럭키석유화학은 93년 매출 2808억원, 적자 636억원에서 94년 매출 3200억원, 적자 50억원(추정)으로 적자폭이 대폭 감소됐으며, 94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유화 역시 94년 매출 3700억원, 적자 50억원으로 93년 1245억원 적자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등 최근 법원에「채무변제계획안」까지 제출하는 빠른 경영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감가상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경우도 94년 각각 매출 4800억원, 4200억원, 적자 200억원, 250억원으로 1000억원규모의 적자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을 연출, 95년 흑자전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NCC 기업의 경영호전은 올레핀과 폴리올레핀 시장에서의 빠른 회복이 주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석유화학의 경기회복은 세계경기의 전반적인 회복국면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에틸렌공급의 27.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가장 두드러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폴리머시장의 회복요인이 미국·동남아 등의 수출에 있었다고 본다면 그 원료시장인 올레핀시장 회복 역시 국내 폴리머수요와 함께 직접적인 수출전략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

또한 4월 정기보수기간 이후 터지기 시작한 국내 NCC공장트러블과 그것이 끝날때쯤 연이어 터진 국제시장에서의 NCC공장 가동중단사태가 2/4분기 이후의 가격시장을 좌우했다.

즉 4월에서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집중된 정기보수 및 공장트러블은 원료시장의 공급변화를 가져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올레핀가격이 한달새 100달러이상 급등하는 기현상을 나타냈다. 여기에 일본내 가뭄으로 인한 나고야마·이즈시마 등지의 NCC공장 가동중단 및 조업단축이 선진기업의 절대적 수출전략지인 동남아지역의 판도변화를 가져오는 등 무주공산 동남아에 국내 올레핀·폴리올레핀의 진출이 가속화된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더욱이 2/4분기 이후 5%감산의 미련을 버리고 과감히 국내가격인상을 시도, 상자부와 정면으로 맞대응한 국내 NCC업체의 인위적인 경기변화 의도도 상당부분 시장반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995년 전망

95년의 올레핀시장은 일단 단기성피크라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제경기를 바탕으로 한 석유화학 회복주기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가격상승폭은 94년 하반기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요시장은 계속적인 내수와 수출시장의 여세를 몰아 94년 연평균 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능력을 기준으로한 94년 단지별 수급상황을 보면, 여천단지 에틸렌의 경우 호남석유화학이 생산능력 40만톤, 수요 34만톤으로 6만톤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은 생산능력 70만톤에 수요 43만2000톤으로 26만8000톤의 물량이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화종합화학은 생산능력 40만톤에 수요 48만1000톤으로 8만1000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럭키는 40만톤 생산능력에 40만톤 전량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기타 1만4000톤의 수요를 포함 여천단지 에틸렌수급은 생산능력 190만톤에 수요 166만6000톤으로 모두 23만4000톤이 남아돌았다.

프로필렌은 호남석유화학이 생산능력 23만6000톤에 수요 22만7000톤으로 9000여톤이 남았으며, 대림산업 역시 생산능력 40만톤, 수요 20만6000톤으로 19만4000톤이 잉여물량으로 처리됐다.

또 한화종합화학은 생산능력 20만톤에 수요 1만4000톤으로 18만6000톤이 남았으며, 럭키는 20만톤 생산능력에 35만1000톤 수요로 15만1000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타 4만3000톤의 수요를 포함, 모두 19만5000톤이 남아 국내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올레핀물량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울산단지는 에틸렌의 경우 유공이 생산능력 57만톤, 수요 28만8000톤으로 28만2000톤이 남았으며, 대한유화는 30만톤 생산능력에 수요 33만톤으로 3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수요 27만1000톤포함 울산단지 에틸렌수급은 생산능력 87만톤, 수요 88만9000톤으로 1만9000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프로필렌은 유공이 생산능력 31만2000톤, 수요 25만톤으로 6만2000톤이 남은 반면, 대한유화가 생산능력 18만톤에 수요 41만2000톤, 동양나이론이 생산능력 16만5000톤, 수요 11만2000톤, 기타수요가 10만9000톤 등으로 유공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능력이 34만5000톤에 수요가 63만3000톤으로 울산단지 전체 프로필렌수급은 무려 22만6000톤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와함께 대산단지는 에틸렌의 경우 삼성종합화학이 생산능력 40만톤, 수요 47만4000톤으로 7만4000톤이 부족하며, 현대석유화학이 생산능력 40만톤에 수요 47만6000톤으로 7만6000톤이 부족해 모두 15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필렌은 삼성종합화학이 생산능력 20만톤, 수요 21만6000톤으로 1만6000톤이 부족하며 현대석유화학 또한 생산능력 21만톤에 수요 25만8000톤으로 4만8000톤이 부족, 대산단지 프로필렌은 모두 9만5000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3대단지를 종합하면 에틸렌은 생산능력 357만톤에 수요 350만5000톤으로 6만5000톤이 남는데 반해, 프로필렌은 생산능력 210만 3000톤에 수요 219만8000톤으로 오히려 9만5000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94년 단지별 올레핀 수급상황은 93년에 비해 매우 타이트한 발란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천단지를 제외한 울산·대산단지의 경우는 공급량 확충을 통한 수급균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도품 신증설계획 줄이어

그러나 95년의 상황은 가격면에서 94년에 비유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승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수급면에서는 94년의 가격변화처럼 엄청난 변화를 겪게될 전망이다.

정부가 94년9월 발표한 지도방침완화에 따라 각 NCC기업이 유도품 신증설계획을 서두르는 등 일부 품목은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도방침완화 이후 관련기업이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한 설비투자계획에 따르면, 에틸렌유도품 가운데 HDPE가 유공 10만톤, 현대석유화학 6만톤, 럭키석유화학 8만톤을 합쳐 모두 24만톤에 이르며, LLDPE가 대림산업 10만톤, LDPE 현대석유화학 10만 톤, EG 호남석유화학 20만톤, 현대석유화학 10만톤 등 모두 30만톤에 이르고 있다.

또 VAM은 삼성BP 15만톤, SM은 현대석유화학 20만톤, 포스코캠 25만톤, 유공 17만7000톤, 삼성종합화학 20만톤 등 모두 82만 7000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EDC는 럭키석유화학 15만톤, 한화종합화학 15만톤 등 모두 30만톤이며, VCM도 럭키석유화학 30만톤, 한화종합화학 16만톤 등으로 집계되는 등 이들 유도품을 에틸렌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소요량이 모두 11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프로필렌유도품은 PP가 유공 10만톤, 대림산업 8만톤, 한화종합화학 12만톤, 호남정유 8만톤, 동양나이론 10만톤, 현대석유화학 6만톤 등 모두 54만톤에 이르며, 옥탄올도 럭키 8만톤, 한화종합화학 10만톤 등 모두 18만톤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아크릴산 한화종합화학 4만톤, AN 태광산업 20만톤, PO 유공 6만톤 등으로 PP·옥탄올 등 신규사업에 필요한 프로필렌 연간 소요량이 102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에틸렌은 연간 잉여량이 6만5000톤에 그치고 있으며, 프로필렌의 경우는 오히려 9만5000톤이 부족, 어떤 형태로든지 수급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95년의 올레핀 용도별 수요는 에틸렌의 경우 LDPE 117만4000톤, HDPE 133만4000톤, EG 26만9300톤, VCM 14만7000톤, EDC 9만6000톤, EPR 2만4000톤, AA 1만6300톤, SM 40만5900톤 등 모두 346만6500톤으로 94년 319만8100톤에 비해 8.3% 증가할 전망이다.

「전면자유화」나 신증설조정에 따른 「부분자유화」나

95년 올레핀시장은 이같은 NCC기업의 유도품 신증설경쟁에 따라 제기된 NCC 전면자유화 방안과 유도품 신증설조정방안 가운데 정부가 어느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면자유화를 택할 경우 유도품 신증설계획에 발맞춰 NCC의 신증설이 이뤄질 것이 확실시돼 원료시장과 폴리머시장의 매머드식 신증설바람이 91년에 이어 또한차례 불어닥칠 전망이다.

이와달리 일부 NCC기업에 의해 제시된 유도품 신증설조정방안이 선택될 경우에는 전면자유화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구도가 잡혀나갈 것이다.

결국 한정된 범위내에서의 투자조정이나 아니면 전면자유화나를 놓고 두가지 측면에서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주요변수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은 세계화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곧 국제화·개방화의 완성단계라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기본으로 통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석유화학의 전면자유화는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면자유화는 일시

적인 투자리시로 인해 91년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는 만큼 쉽게 결정이 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하튼 정부방침은「전면자유화」나 「부분자유화」냐를 놓고 선택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전면자유화가 선택될 경우 NCC기업은 당초 계획한 폴리올레핀 및 각종 유도품사업을 위해 가장 시급한 원료부분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곧 NCC신증설을 의미하여, 에틸렌 113만톤, 프로필렌 102 만톤의 추가 소요량을 흡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추진될 것이 확실시된다.

결국 가격면에서의 국제적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긴 하나 시설면에서의 과잉중복투자를 커버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이같은 상황은 국제시장에서의 94년 하반기 이상의 호황국면을 기저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모험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NCC업계가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수급균형을 유지, 어느정도 안정된 신증설을 추진한다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현실점에서는 더욱 시장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000년 완전자유화를 기본목표로 NCC설비와 계열제품 설비투자를 구분하여 연도별 2단계 조정안이 선택될때는 상황이 사뭇 다를 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95년에서 98년까지 1단계, 2000년이후는 2단계로 구분, 1단계는 NCC의 경우 각사 Debottlenecking에 의한 증설허용, Down-Stream의 경우 단지별 수급상 기초유분 잉여물량보유사의 D-Stream 진출허용, 기존 타사공급물량 유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2단계는 전면자유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1단계에서 원료수급상 능력있는 NCC기업에 유도품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그이후 단계적으로 전면자유화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 방안이 선택될 경우에는 95년부터 98년까지는 일단 Detottlenecking에 의한 기초유분증설과 함께 이에따른 수급을 고려, 잉여물량 과다보유사의 신규투자만 허용되게 된다.

다시말해 이 안에 따르면, 에틸렌의 경우 NCC증설 없이도 기초유분이 남아도는 대림산업(에틸렌 잉여물량 19만2000톤 · 프로필렌 15만1000톤), 한화종합화학(프로필렌 17만6000톤)이 10만톤 규모의 LLDPE와 20만톤 규모의 PP사업을 기본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95년 기초유분 증산이후 기초유분 과다보유기업인 유공(에틸렌 잉여물량 14만톤 · 프로필렌 12만1000톤), 럭키(에틸렌 10만톤), 호남석유화학(에틸렌 13만톤), 동양나이론(프로필렌 6만7000톤), 한화종합화학(프로필렌 2만톤), 포스코켄(에틸렌 18만4000톤)이 HDPE 10만톤, SM 42만7000톤, EDC 15만톤, VCM 30만톤, EG 20만톤 증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프로필렌유도품 가운데 PP 20만톤, PO 8만톤, AA 4만톤규모의 증설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95년 유도품 증설계획을 발표한 기업의 NCC Debottlenecking이 조속히 이뤄질 것이 확실시돼 전면자유화의 전단계인 기존 NCC의 부분적인 증설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나프타대체화 · 환경규제 · 동남아 판도변화도 주요변수

이밖에 95년 올레핀시장의 주요변수는 정부의 자유화정책과 맞물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나프타대체화의 현실성 여부이다.

지금까지 기초유분시장은 단순한 의미에서 나프타에 모든 것을 의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나프타가격결정 문제도 이같은 대체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NCC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LPG, Heavy NGL 등의 원료대체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H-NGL은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간이정제시설 허용여부를 놓고 정부 · 정유사 · NCC 기업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유사의 기득권이 어느선까지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이나 여하튼 정부의 규제완화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원료대체화 측면에서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일 간이정제시설이 95년 허용될 경우 삼성종합화학과 대림산업의 신규진출은 거의 확실시되며, 상당한 속도로 나프타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하나의 변수는 세계적으로 신질서라 불리는 각종 환경규제의 발효여부이다.

GR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석유화학규모화를 저해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95년 발효될 전망으로 이같은 환경규제가 어느정도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그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밖에 미국의 경제이익정책과 수출드라이브정책이 어느정도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일본 NCC업계의 조업회복여부 및 자국시장의 수급발란스유지 등이 주요변수로 꼽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무주공산 동남아시아장이 94년 하반기 한국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점차 미국과 일본 등 기존 터줏대감의 재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판도변화가 서서히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의 경우 94년10월 미쓰비시유화와 미쓰비시화성의 합병으로 아시아최대의 종합화학기업인 미쓰비시화학이 탄생하는 등 동남아 재장악시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같은 시장재편을 쉽게 점칠 수 있다.

그러나 91년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한해동안 추락하는 산업에 기술과 정보의 날개를 달아온 국내 석유화학이 과연 이같은 변수 앞에 쉽게 무너질 것인가에는 고개를 흔드는 전문가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의 현명한 기준에서부터 올레핀기업의 자구적인 시장질서확립 노력이 결국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95년을 맞으면서 올레핀시장이 정확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으로 94년의 회복세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본연구원이 추구하는「한·중화학산업 협의회」의 발족 또한 95년 NCC 경쟁력강화의 한 틀을 제공할 것이 틀림없음을 감히 제언하고자 한다.

<화학저널 1995/1/2>